

정의로운 도시의 시민은 부정의한가?:

플라톤의 정의론에 관한 버나드 윌리엄스 소론 검토

김남두*

【요약】

B. Williams가 그의 논문 ‘The Analogy City and Soul in Plato’s Republic’에서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은 부정의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제시한 이후 이 물음은 플라톤의 『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 물음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런 Williams의 견해에 반해 플라톤의 정의로운 폴리스에서 각 구성원들이 플라톤적 의미에서 정의로움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국가』 4권에서 법을 지킴(nomimon) 개념에 근거하여 논의되는 용기에 관한 대화 부분을 분석한다. 이 토대 위에서 이 논문은 법과 그것을 지키기 무사나 생산자들의 영혼 내에서 이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영혼도 플라톤적 의미에서 정의로움을 밝힌다.

【주제어】 정의, 법을 지킴, 국가, 영혼, 용기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의 영어 초고는 2011년 7월 Bologna에서 열린 제 18차 ISHR(국제수사학사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고, 이 초고의 확장본이 2012년 1월 Pisa대학교전학과 초청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다. 이 확장본에 근거한 한글원고가 2012년 5월 서양고전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세 모임에서 질문을 통해 논문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한다. 확장, 개고된 영어본은 Bologna에서 2012년 11월 간행될 *Papers on Rhetoric* 제12집에 출간예정이다.

I.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를 주제로 다룬다. 이 주제에 관해 지난 반세기 연구사에서 다양한 측면의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핵심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두 문제 제기가 특별히 주목될 만하다. 두 문제 제기가 특별히 주목될 만 한 이유는 저술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핵심 주장 자체의 타당성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 제시된 소크라테스의 긴 논의가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을 적절히 반박했으며, 정의를 성공적으로 옹호했는가라는 문제가 그 하나이며, 플라톤의 정의로운 폴리스의 구성원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그 두 번째의 것이다. 이 물음들은 텍스트의 특정 해석 내지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플라톤 자신, 혹은 작품 내에 등장하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견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두 문제 가운데 두 번째 문제인 ‘정의로운 도시의 시민은 부정의한가?’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1973년 Williams(윌리엄스)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¹⁾ ‘정의로운 나라의 구성원은 대부분 부정의하다’는 윌리엄스의 입장이 오늘날까지도 이 논의에 관해 부동의 출발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윌리엄스의 주장에 대해 작중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면서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도시의 구성원들은 부정의한가?’

1) Bernard Williams의 이 논문은 ‘The analogy of city and soul in Plato’s Republic’이라는 제목으로 Vlastos의 Festschrift “*Exegesis and Arguments*”(1973) eds. by E. N. Lee et al.의 pp. 196-206에 수록된 후 여러 플라톤 관련 논문 모음집에 재수록 되었다. 이는 플라톤의 정의 논의에서 이 논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평가의 일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이 목표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가』 4권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분석함과 더불어, 역시 4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법을 지킴(to nomimon)’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이 개념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정의로운 도시의 구성원들 또한 정의롭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아울러 법을 지킴을 넓은 의미의 정의로 규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의 연관을 간략히 언급하게 될 것이다.

II.

『국가』의 1권에서 ‘정의로운 자가 부정의한 자보다 더 행복한가?’ 라는 물음이 중심 물음으로 제기되고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의 대화자들은 먼저 정의가 폴리스와 개인들의 영혼에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 둘 가운데 좀 더 큰 폴리스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더 잘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 아래 그들은 말을 통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한다.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통해 정의와 부정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논의 없이 합의하며, 비교적 긴 논의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함(to hekaston ta hautou prattein, Resp. 425)’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이 정의 규정이 폴리스나 개인의 영혼 모두에 공히 타당함을 밝힌다. 폴리스와 개인에서 동일한 정의 규정이 타당함은 양자가 정의로움의 형상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고 유사하다(kat’ auto to tes dikaiosunes eidos ouden dioisei, all’ homoios estai 435 b)는 데 근거해 있다. 수호자, 보조자, 생산자의 세 그룹이 나누는 폴리스와 이성, 기개, 욕구의 세 기능이 나누는 개개인의 영혼이 그 형상에서 같으며, 폴리스나 개인 영혼에서 각 파트들이 자신의 일을 할 때 그 폴리스나 영혼은 정의롭다고 이야기된다. 433a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나 준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게, 또는 그것의 일종이 정의일세. 자네도 기억하겠네만, 분명히 우리가 주장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던 것은,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었네. [...]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제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듣기도 했고, 우리 자신도 몇 번이나 말하기도 했네."(IV 433a-b)²⁾

폴리스의 경우 수호자, 보조자, 생산자의 세 부류가 각기 자신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그 폴리스가 전체로서 정의롭다고 불리듯, 개인 영혼의 경우도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이 각기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정의롭다. 폴리스와 영혼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 되고, 이런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해 이야기 된 정의에 관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나라에 있는 것들과 똑 같은 형상들과 성격들(eide te kai ethe)이 있다는 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이겠지? 그곳 이외의 다른 데서 나라에 있는 것들이 유래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일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개의 부류가 여러 나라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개개인들 [...] 에게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스울 일 이겠기 때문일세.'”(IV 435e)

인용문에서는 폴리스에 있는 형상들과 성격들이 개인 영혼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폴리스에 있는 그 형상들과 성격들이 바로 그 구성원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덧붙이고 있다. 즉 폴리스에 존재하는 형상과 성격들이 비롯된 곳이 바로 폴리스 구성원들에 있는 동일한 형상과 성격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eidos는 이성, 기개, 욕구라는 영혼 내의 기능들을 말하며 성격으로 번역된 ethos는 이 형상들이 가진 성향을 말한다.

2) 한글 번역은 박종현 교수의 서광사 발행 『국가』 2005년 개정증보판을 사용한다.

개인들이 가진 이성적이고 기개 있고 욕구적인 성향들이 폴리스가 가지는 동일한 성향들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를 부정하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다.

물론 이성적이고 기개 있고 욕구적인 부분이 폴리스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영혼의 부분으로 있다는 것이 그 폴리스가 이성적이고, 기개 있고, 욕구적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폴리스의 이성적임, 기개 있음 그리고 욕구적임은 구성원들에 동일한 종류들이 있음에 원천을 두고 있지만, 구성원들에 동일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폴리스가 그러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폴리스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 영혼에서 이성적 부분이 두드러진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맡고, 기개가 두드러진 자들이 나라를 방위하는 일을 맡아야 하며, 구성원들 가운데 더 나은 자가 지배한다는 데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한마음이 될 때 도시가 절제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개인들에게 동일한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를 넘어서 동일한 종류의 것들이 그에 적합한 일을 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³⁾ 어쨌든 폴리스의 이성적임, 기개 있음 그리고 욕구적임이라는 성격이 그 폴리스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그 같은 성격에서 유래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으며, 인용문에서는 이 점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여기서 해석된 의미에서 이 부분에 관해 필자는 윌리엄스와 입장이 같지 않다. 플라톤이 위에 인용된 435e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구성원이 f일 때 오직 그 때만 f이다’라는 Williams의 해석은 부적절하다. 이 구절은 폴리스의 각 부류들(eide)이 가지는 성격(ethos)은 그 성격을 가지는 개인들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각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성격에 알맞은 일을 할 자리에 있을 때에만 정의로운 폴리스가 가져야 할 부류들을 가진다는 점에 관해서는 <희랍철학연구>에 실린 필자의 ‘플라톤의 정의 규정 고’(1988)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III.

우리가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윌리엄스의 입장은 바로 위에서 논의된 인용문의 해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입장은 윌리엄스 자신이 정리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⁴⁾

a) 폴리스는 그 구성원이 f일 때 오직 그 때만 f이다.

그리고 동시에

b) 폴리스의 f임의 설명은 구성원의 f임의 설명과 동일하다.(f임의 동일한 형상이 양자에 적용된다)⁵⁾

나아가 정의로움은,

c) 이성, 기개, 욕구(logistikon, thumoeides, epithumetikon)가 각기 자신의 일을 함

으로 정식화되며, 이는

d) 이성이 지배한다

4) 윌리엄스, 여기서 는 Kraut(1997) pp. 51f.에서 인용.

5) 윌리엄스는 여기서 a)와 b) 양자의 결합이 무한 퇴행을 결과할 수 있으나 플라톤의 논의에서 폴리스와 그 구성원의 관계에 한정하고, 구성원과 그 하위 단위의 관계로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Kraut (1997), pp. 52ff. 참조

는 것을 함축한다. a)를 정의의 경우에 적용하면 우리는

e) 한 폴리스는 그 구성원들이 정의로울 때, 오직 그 때에만 정의롭다.

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폴리스나 그 구성원이 정의로운 경우 양자 모두에게 또한 c)가 타당하므로

f) 폴리스의 구성원들이 이성적이고, 기개 있으며 욕구적일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폴리스의 구성요소는 이성적이고, 기개 있으며 욕구적이다.

마지막 명제 f)에서 구성원은 개별 시민들을 의미하고 구성 요소는 폴리스를 구성하는 세 부분 즉 이성적 부분, 기개적 부분, 욕구적 부분을 의미한다. c)에 따라 폴리스가 이성적이고, 기개 있고 욕구적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이성적 부분, 기개적 부분, 욕구적 부분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폴리스가 욕구적 부분을 가지는 만큼 욕구적 부분을 이루는 욕구적 구성원들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 욕구적 구성원들은 폴리스 구성원의 다수 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의 이 마지막 언명에 윌리엄스는 이 욕구적 구성원들 즉 생산자 그룹이 정의롭지 않다는 언명을 덧붙인다. 그리고 폴리스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정의롭지 않으므로 정의로운 폴리스는 자신 안에 정의롭지 않은 구성원을 가장 큰 부분으로 가지게 된다. 이는 위에 제시된 e)에 모순되며 따라서 플라톤의 주장은 내적 모순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IV.

윌리엄스의 이 논의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려는 점은 그가 마지막에 덧붙인 언명이다. 즉 정의로운 폴리스를 구성하는 욕구적 요소는 욕구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폴리스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욕구적이며 따라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폴리스의 이 부분이 정의롭지 않은 만큼 폴리스는 정의롭지 않은 구성원을 다수로 가진다는 것이 윌리엄스의 생각이다. 그의 언명은 과연 정당한가? 정의로운 도시의 하위 두 그룹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윌리엄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의 주장이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정의로운 폴리스의 구성원들은 모두 플라톤적 의미에서 정의롭다는 것이며, 따라서 전사 계층과 생산자 계층이 모두 플라톤적 의미에서 정의롭다는 것이다. 세 그룹의 구성원들이 모두 플라톤적 의미에서 즉 그들의 영혼에서 각 부분이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의롭다고 이야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의로운 폴리스의 시민들은 정의롭다는 것, 이것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과제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윌리엄스가 폴리스의 이성적인 부분 즉 통치자 그룹은 정의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자 그룹을 제외한 전사 그룹과 생산자 그룹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그룹으로 간주되나 논의에서는 특히 생산자 그룹이 정의롭지 않음이 언명되고 있다. 그의 이런 평가가 정당하다면 a)와 c)를 함께 주장하는 플라톤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며, a)와 c) 가운데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윌리엄스의 생각이다. 위에 마지막으로 인용된 구절을 윌리엄스처럼 a)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일단 그의 해석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 보자. 정의로운 폴리스의 시민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밝히는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윌리엄스 주장의 키 역할을 하는 주장인 정의로운 도시의 가장 큰 부분인 욕구적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정의로운 도시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c)가 참이며, 이에 따라 정의로운 도시는 이성적, 기개적, 욕구적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도시가 욕구적 요소를 가지므로, 이 도시는 f)에 의해 욕구적 개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욕구적 개인들은 “틀림없이(surely)“

부정의하며, 그들이 부정의 하다면, 도시는 다수의 부정의한 사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변이다.

윌리엄스의 이 논변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다음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적시한 c)에 따라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의 것만을 하며, 따라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통치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나 생산자 그룹에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것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전사나 생산자는 어떤 의미에서 부정의한가? 그는 ‘surely’ 라는 말을 삽입하며 그들이 -틀림없이- 부정의 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의 이 언명의 근거는 이들의 영혼을 이루는 세 부분이 정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c)는 도시와 개인 모두 각 부분이 자신의 것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윌리엄스는 여기서 d)를 제시하고 자신의 것을 하는 전사나 생산자들에서 과연 d)가 타당한지, 즉 그들의 영혼에서 이성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윌리엄스를 반박하며 정의로운 나라에서 전사 계층이나 생산자 계층이 정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성이 지배하는 체제와 상태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사와 생산자의 영혼에서 기개와 욕구가 자신의 일만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비이성적이며 단지 기개 있고 욕구적이기만 할 뿐 이성적이지는 못한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다.

V.

『국가』의 4권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자들은 말을 통해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친 후,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따라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지닌 나라라는데 합의한다. 지혜, 용기, 절제를 규정하면서 이 덕들이

그들이 세운 좋은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찾던 정의의 덕을 대화하는 중에 이미 언급했으면서도 그것이 정의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나 준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제, 또는 그것의 일종이 정의일세. 자네도 기억하겠네만, 분명히 우리가 주장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던 것은,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었네. [...]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제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듣기도 했고, 우리 자신도 몇 번이나 말하기도 했네." (IV 433a-b)

인용된 구절의 서두에서 우리는 앞의 인용문과 연결되는 한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대화자가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언제나 지켜야 한다고 놓은(ethemetha)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 말하고 있다. 그들이 놓았던 것은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한다는 규정이며 여기서 놓는다는 말과 함께 그것은 법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준수하도록 강조된 것은 바로 정의 규정이다. 놓아진 것, 그리고 지켜져야 할 것으로서의 정의, 적어도 4권까지의 정의는 공동체 성립과 그것의 좋음을 확보하는 공동 규정으로서 주어진다.

인용구절에서 명시적으로 언명된 또 한 가지 점은 '제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의 규정이다. 폴리스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천성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초기 폴리스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는데, 바로 이 분업의 원칙이 '각자에게 자신의 것'이라는 정의 규정의 실질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것이란 각자가 타고난 소질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에게 적합한 것(prosekon)이다. 아울러 여기서 각자(hekaston)란

문자 그대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들을 지시하는데, 이 개개인이 농부, 직조인, 목수, 무사 등 공동체의 일과 관련하여 구분되었으므로 ‘자신의 것’에서 ‘자신’도 그 각자가 구분되는 공동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구절은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한다’는 구절에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폴리스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첨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잘 해내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신의 일 이외에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경우 그가 속한 폴리스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각 구성원이 타인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그 폴리스가 정의롭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다. 즉 자신의 일을 함이란 정의 규정은 자신의 일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일 만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VI.

부정의한 부분과 정의로운 전체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함’이라는 규정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하는 경우 정의롭다고 명명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 구성원들의 행위나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성원으로 가지는 폴리스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함’이라는 규정이 공동체 구성원의 개별 행위가 정의로운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 그리고 구성 부분 각각이 자신의 것을 하는 공동체의 상태를 지시한다는 점이다. 즉 각 구성부분이 자신의 일을 하는 상태의 구성체로서의 폴리스가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정의롭다는 언명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폴리스의 정의 규정에 관해 제기되어 온 문제의 하나는 이렇게 정의롭다고 규정되는 폴리스의 구성 부분이 역시 정의롭다고 이야기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전체 폴리스의 정의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각 부분은 바로 그 부분적 성격 때문에 정의로움이 언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가 정의롭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며 이 물음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이 무엇인지가 물어질 수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폴리스의 정의에 이어 진행되는 개인 영혼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 큰 폴리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서 이에 비추어 개인 영혼의 정의를 검토한다는 대화자들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폴리스와 개인 영혼이 동형적이라는, 즉 양자가 동일한 형상(eidos)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폴리스가 생산자, 무사, 통치자의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이 세 부류가 각기 자신의 일을 할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듯이, 개인의 영혼도 욕구, 기개, 이성의 세 부류가 자신의 일을 하고 그리하여 각 부분 사이에 조화가 있을 때 정의롭다고 이야기 될 수 있다.

앞에 제시된 문제에 관련하여 이 개인 영혼에 대해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이 같은 조화를 이루는 영혼의 모습이 폴리스의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뒤에서 철인으로 표현되는 통치자 그룹이 이런 조화로운 영혼을 가진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혼 내에 지혜, 용기, 절제를 가지며 영혼의 각 부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통치자 이외의 생산자나 무사 그룹에 대해서도 영혼의 세 부분 사이의 정의로운 질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통치자 부류의 경우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하고 기개나 욕구의 부분이 이성적 부분에 따르거나 복종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그려지는 무사 계층이나 생산자 계층에 대해서는 이성적 부분의 지배라는 정의로운 영혼의 모습을 그리기 어려우리라는 점이 연구자들 사이에 지적되어 왔다. 이런 경우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에 의해 정의로운 전체가 구성된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가 부정의한 부분들을 통해 구성된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부정의한 구성부분들을 통해 성립되는가?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지 않음을 무사 계층의 용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보이는 일이 이 논문의 다음 부분을 이룬다. 이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개념이 바로 법을 따름(nomimon)의 개념이다.

VII.

『국가』 4권의 429a-430c에서 대화자들은 무사 계층의 용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용기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런 능력”(429c)⁶이라고 규정된다. ‘용기란 무엇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신념의 견지(soteria tes doxas)’이다. 즉 용기는 ‘신념을 견지하는 일’이다. 신념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성립한다. 인용문에 따르면 이 신념을 영혼에 부여하는 것이 법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교육되어야 할 것이 규정되며, 나아가 법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기능한다. 견지 혹은 유지로 번역된 말은 ‘soteria’이며 일종의 내면화라 이해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이것이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내면화된다. 법과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이 경우 인식이 아니라 의견, 신념이다. 법과 교육을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수되는 용기가 신념과 관련된다는 것은 그것의 담지자가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에 관해 인식에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6) “τὴν δὴ τοιαύτην δύναμιν καὶ σωτηρίαν διὰ παντὸς δόξης ὀρθῆς τε καὶ νομίμου δεινῶν πέρι καὶ μὴ, ἀνδρείαν ἔγωγε καλῶ καὶ τίθεμαι(text, Slings). This power in the soul, then, this unflinching conservation of right and lawful belief about things to be and not to be feared is what I call and would assume to be courage.” (430b)(translation, Shorey)

뜻한다.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교육을 통한 신념의 내면화가 모직물의 염색 작업에 비유되고 있다. 염색의 과정을 통해 염색하려는 빛깔이 모직물에 탈색되지 않고 깊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정을 철저히 거치듯이, 잊히지 않는 굳은 신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사 계층이 그들의 법을 물감처럼 깊이 받아들여 쉽게 탈색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기에 관해 법이 명하는 것 뿐 아니라 삶의 영역 전반에서 법에 의해 교육된 것을 따르고 내면화한다.

이런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따라서 견지해야 할 신념을 가지는 일일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법의 준수를 삶의 방식으로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지키는 법은 삶에 의해 근거 지어진 것이며, 따라서 법에 따라 생활함은 적어도 플라톤의 좋은 나라에서는 이성적으로 근거 지어진 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인용문에 언급된 nomimon이라는 개념은 ‘법에 맞는’ 혹은 ‘법에 합당한’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플라톤은 ‘법에 따라 형성된 올바른 신념 (doxes orthes te kai nomimou 430b)’을 우연히 가지게 된 올바른 신념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후자를 동물이나 노예의 신념과 같은 것으로 격하하고 있으며 오로지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념, 즉 법에 따라 형성되고 따라서 법에 합당한 신념만이 의미 있는 신념이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런 신념의 형성에서 법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며, 올바른 신념을 우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법에 맞고 법에 합당함이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공동체 전체의 좋음에 관해 그리고 각 구성원 그룹에 좋은 것에 관한 삶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법을 제정한 통치자들은 각각의 법이 왜 선택되고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왜 좋은지 삶을 지니고 있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에 관한 삶에 의해 제정되고 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삶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교육되었기에 법과 교육에 근거한 신념이 그렇지 못한 믿음과 구별된다. 법은 삶과 근거 제시의 요구에 토대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법에

따른 교육을 통해 형성된 신념은 신념이기는 하지만 우연히 가지게 된 믿음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신념은 왜 그 신념이 가질만한 신념인지를 그 신념을 가진 자가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런 한에서 나름의 근거 제시가 가능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중심 부분이 통치자 그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런 삶의 논의에 할애되고 있는 만큼 이 삶의 원리에 부수적인 법을 따름의 문제가 주제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교육을 통해 근거제시의 능력이 없는 믿음과 법에 근거한 교육의 산물인 신념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430b의 구절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폴리스에서 이 무사계층에 부족한 이성적 능력의 자리를 메워 주는 것이 바로 내면화된 법이다. 이 법과 법에 규정되는 교육을 통해 폴리스 구성원들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좋음에 정의하는 삶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전사들이나 생산자들의 경우 내면화된 법이 이성의 일을 대신한다. 법에 따르는 삶의 방식은 전사나 생산자 계층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성의 역할을 보완해 준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정의로운 만큼, 그들의 기개나 욕구는 일단 자신의 일만을 하고 각자들의 삶에서 이성이 수행해야 할 지배자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보된다. 적어도 생산자 그룹이나 무사 계층의 영혼에서 기개나 욕구가 남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정의롭다고 이야기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두 부분이 남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에서 이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리가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성이 수행해야 할 자리에 준법적 삶의 방식이 위치한다. 물론 그들은 이런 법을 통해 삶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오직 옳은 의견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지만 법의 내용 자체는 근거 지어진 것이며, 근거 지어진 삶을 스스로의 믿음으로서 가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에서 각기 부분이 수행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올바른 영혼의 모습이 갖추어진다는 것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정의로운 도시와 시민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영혼이 세 구분되는 부류를 가지며, 각 부류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다른 부류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의의

조건이 이들의 영혼에서도 확보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정치철학 논의가 주로 개인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위의 해석에 따르면 폴리스가 개인들에게 법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즉 폴리스 안에서 삶에 의해 온전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이 같은 국가의 개입이 좋음의 선택능력과 그를 위한 자유가 보장된 근대적 그림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플라톤이 그린 국가에서 ‘국가를 위한 개인’이라는 면이 주로 부각되고 ‘개인을 위한 국가’라는 시각이 거의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한 해석은 이 같은 일방적 시각에 대한 교정의 여지가 주어진다는 점은 주목될 만한 것이다. 이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보고, 둘 사이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한 텍스트 해석이 플라톤의 입장을 좀 더 온전히 드러내 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조요한 외(1988), 『희랍철학연구』, 종로서적.

플라톤, 박종현 역(2005), 『국가』, 서광사.

Slings, S. R.(2003), *Platonis Rempublicam*, Oxford.

Shorey, P.(1978), *The Republic I & II*, Loeb Classical Library.

E. N. Lee et al. (eds.)(1973), *Exegesis and Arguments, Phronesis supplement volume I*, Van Gorcum.

Ferrari, G.R.F.(2005) *City and Soul in Plato's Republ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raut, R.(ed.)(1997), *Plato's Republic - Critical Essays*, Rowman & Littlefield Pub. Co. NY & Oxford.

Williams B.(1973), "The analogy of city and soul in Plato's Republic", E. N. Lee et al. (eds.) *Exegesis and Arguments*.

【Abstract】

In his article ‘The analogy of city and soul in Plato’s Republic’ B. Williams raised the question whether the citizen in the just city is just and answered negatively to the question. This paper aims to present an argument for the question and to argue that the citizen in Plato’s just polis is just in the Platonic sense. The crucial question is whether the rational part of the soul does its job properly in case of warrior and producer classes of this city, because only then their soul can be said to be just. To answer this question, a passage in Plato’s Republic IV concerning courage is analyzed in which the courage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the lawfulness (to nomimon). It is shown that the law and the lawful way of life of the soul play the role of reason in the educated soul with law and the other two parts of soul do their jobs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works of others and therefore the soul can be said to be just.

【Keywords】 justice, lawfulness, city, soul, courage

논문 투고일: 2012. 10. 08

심사 완료일: 2012. 10. 19

게재 확정일: 2012. 10. 22